

농사 짓는 농부 화가의 이웃 이야기

김필수 ‘자유스러움~’ 전

18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거친 연필 데생 작업 주목



김필수

농부 화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인의 상흔을 화폭에 담아낸 전시가 갤러리 관선재에서 열리고 있다. 김필수 초대전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다’이다.

이번 전시는 5년만에 열리는 김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유화 작품

과 크로키 35점을 전시, 새롭게 구상한 작품과 기존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어 그간 변화한 화풍도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김 작가는 나주에서 감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자 30년째 예술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농부 화가다. 화려하기보다는 투박하고 정감 있는 맛깔나는 작업을 보여준다.

김 작가의 주요 작품 주제는 ‘뿌리 잃은 현대인’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가난한 이웃들을 조망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추상적 개념을 도입한 인물 군상 시리즈와 연필 데생을 통해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군상 시리즈는 김 작가가 오랜 시간 관찰한 이웃의 이야기를 자유로운 필선과 색감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 중 주목해야 할 작품은 연필 데생 작업이다. 다소 거친 느낌의 이미지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살피며 관람하는 것이 관전포인트다. 김 작가는 황토 계열을 주로 사용한다. ‘황토’는 흙의 이미지가 강하다. 나주에서 나고 자란 김 작가는 농부이자 자연인인 자신을 가장



김필수 ‘만인보’

잘 표현하는 색인 동시에 친밀감도 느낄 수 있어 황토를 선택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회화 작품은 크로키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다”며 “여러 포즈들이 서로 겹치면서 조화로우면서도 색감은 조화로우면서도 다양성의 웃을 입혀했다”고 설명했다.

인생의 순간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했던가. 김 작가 또한 삶 속에서 몇 차례의 굴곡을 만났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작품의 주제인 ‘뿌리 잃은 현대인’은 어쩌면 김 작가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삶의 역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작가는 “인생의 절반을 나무를 가꾸며 살아왔다. 삶 속에서 굴곡이 있었고 생사의 고비에 서기도 했다”며 “고등학교 전국대회에서 그림으로 특선을 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림을 그릴 때 행복

했던 기억이 있어 붓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사생회 회원이나 조선평 사회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을 오가며 기초를 쌓았다. 이후 독학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갔다. 그래서일까. 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김 작가는 “어쩌면 이런 처연한 모습이 내 의식 속에 내재된 정제된 고향 사람과 날개가 끊어져 버린 나비의 허망한 꿈이 아닌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던 부모님에 대한 애환이 한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 생각도 해본다”며 “아들바등 밀려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 밑바닥에 집전돼 있는 나 자신의 소리를 계속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술인이기 이전에 농민이다 보니 가뭄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다. ‘메마른 땅’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구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18일까지. /이나라 기자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

내달 23일까지 일반·청소년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밝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담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은 13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전 주제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및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담은 밝고 미래지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명칭’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일반부와 어린이·청소년부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청년·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부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다. 두 부문 모

두 개인 혹은 5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ACC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20명(팀)을 선발, 오는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입상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상·전당장상과 함께 모두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ACC 오월문화주간과 민주·인권·평화 관련 대표 캐릭터로 팬 상품 제작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된다. ACC미디어 월과 누리소통망(SNS) 등 ACC의 각종 홍보 매체에 게시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ACC 홈페이지(<https://www.acc.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52song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062-601-4264)로 문의하거나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별밤미술관 3·4월 작가초대전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5인5색

광산구 별밤미술관이 3·4월 작가초대전을 개최, 지역 예술인의 동·서양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첨단쌍암공원 이병선 ‘MAN-Blue Shadow’, 수완 풍영정 천변길공원 강일호 ‘세레나데’, 운남근린공원 장원석 ‘공간의 향해’, 신창역사문화공원 김인숙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하다’ 등이다.

별밤미술관 in 첨단 전시는 이병선 작가가 인간의 몸을 되돌려 작게 단순화시키고 실루엣 처리를 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한 이병선 작가는 호남조각회, 전국조각가협회, 광주미술인협회 등에서 활동중이다. 2008시아갤러리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 전국조각가협회 광주대구 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별밤미술관 in 수완 전시는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작업해온 강일호 작가가 현실에 없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전혀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들에 충돌과 혼용으로 몽상적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강 작가는 2007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2010~2013 대동창작스튜디오, 2009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팔각정 입주작가 등을 지냈다.

별밤미술관 in 운남은 장원석 초대전 ‘공간의 향해’가 열리고 있다. 광주현대판화가협회 장인 장원석 작가는 전통판화기법의 하나인 우드컷(WOODCUT·소별판법)으로 작업, 수많은 조각 칼질의 행동을 통해 모노크롬적 형태들로 작품을 극대화했다. 옛 산수와 중에 겹쳐 정



김인숙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 하다 22-4’



임근재 ‘나의 노래1’

선의 작품을 현재 공간에서 본인만의 판화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별밤미술관 in 신창은 김인숙 작가의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진행 중이다. 김 작가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날들을 작품에 담았다. 작은 구조가 전체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구조인 프렉탈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별밤미술관 in 선운에서는 임근재의 ‘나의 노래’가 열리고 있다. 소재들의 특별한 회화적 변용 없이 그 실제 모습을 냉철하고 충실하게 묘사하는데 주력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4월 28일까지다. /최진화 기자

광주과학관, 인공지능 탐구활동 동아리 지원

31일까지 호남권 초·중·고 대상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 과학문화 확산 및 인재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동아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국립광주과학관은 선정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인공지능 동아리는 ▲동아리 탐구활동 물품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 및 운·오프라인 컨설팅 ▲과학관 무료입장(상설전시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10월에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발명 페스티벌과 연계해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광주시장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을 수여한다.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목포(갑)	010-3272-2765
목포(을)	010-3635-6777
여수지사	010-8648-1236
순천지사	010-2547-7890
나주(갑)	010-7706-2410
나주(을)	010-3713-7458
담양지사	010-8004-9885
곡성지사	010-6764-6100
구례지사	010-6636-3039
고흥지사	010-9151-2828
화순지사	010-3100-0386

장흥지사	010-3613-6114
강진지사	010-6646-1241
해남지사	010-8181-2627
영암지사	010-4624-8409
무안지사	010-3621-8989
함평지사	010-3600-0500
영광지사	010-8666-2882
장성지사	010-3666-1300
완도지사	010-5619-7020
진도지사	010-3624-4777
신안지사	010-4627-1472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